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 K-푸드 글로벌 확장 중심지로

농식품부, 타운홀 미팅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도화 새만금 중심 캠프 전진기지 미식·관광 연계 등 제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K-푸드 세계화의 전진기지 농생명수도 전북 전략 발표를 계기로 관련 정책을 현장 실행 사업으로 구체화해 도민 체감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9일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달 27일 전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전북을 중심으로 K-푸드 글로벌 확장과 그린바이오 산업·스마트농업 고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 전략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도화 △새만금 중심 캠프산업(그린바이오) 전진기지 조성 △미식·관광 연계 브랜드화 산업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K-푸드 수출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2단계 확장을 통해 푸드테크 중심의 미래 식품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새만금을 캠프·종자·식품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실증·확산 거점으로 키우고, 전북 김제 스마트산 과수밸리와 새만금을 축으로 AI 기반 스마트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미래 농업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주비빔밥·임실치즈·순창 장류 등 지역 자산을 수출 전략 상품과 관광 콘텐츠로 연계해 먹는 관광을 산업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 같은 정부 4대 전략을 선도적인 실행 모델로 구체화하고, 국가예산 사업과 대형 국제 프로젝트로 연결



휘발유 매진 알리는 안내문

기름값이 중동 사태에 영향으로 차츰 오른 가운데 9일 어느 주유소 가격인내 전광판에 휘발유 소진으로 인한 매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시 제공)

해 실질적인 투자와 성과 창출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추진된다. 푸드테크 중심의 미래 식품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창업, R&D, 제품화, 수출까지 이어지는 윈윈 지원체계를 갖춰 K-푸드 수출 플랫폼 기능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사관학교와 공유공장 조성도 병행해 지역 청년이 전북에서 창업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정부는 도는 새만금을 '글로벌 메가특구 1호' 캠프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 106조 원 규모의 세계 시장을 선점할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올해부터 2035년까지 3,875억 원을 투입해 재배,

안전관리, 추출·가공, 수출까지 전주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릴 방침이다. 새만금을 '샌드박스 1호'로 지정해 규제 특례와 국가 책임형 관리모델을 적용하고, 캠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다진다.

구 김제광항 부지와 새만금 일원에는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1,738억 원)를 조성하고, 피지컬 AI 기반 로봇·드론 R&D를 유치해 생산 중심 농업을 넘어 바이오와 AI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구상이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는 청년 스마트농업인 양성을 확대하고, AI 기반 미래농업 실증 거점 배치

를 정부와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전주비빔밥·임실치즈·순창 장류 등 지역 대표 식품 자산의 수출 전략 상품화도 중점 추진한다. 정부의 K-미식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한 전북 선점을 추진하는 한편, 전봉장류 소스 상품화 및 GMO-FREE 국산콩 전라 상품 개발을 병행한다. 미식·관광·특산 주·농촌체험 자원을 잇는 고부가가치 산업 모델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과기부의 식품 제조공정 데이터화·AI 기반 품질예측 푸드테크, 기후부의 스마트팜 탈탄소 전환·바이오에너지화 등 정부 핵심 정책을 전북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데도 주력한다. 이를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글로벌 확산 거점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1만호 기자

## "내란방조 책임 끝까지 묻겠다"

민주 이원택 의원, 중앙당 전북도지사 후보 공천 심사결과에 '김 지사 포함 3인 경선, 당원·도민 판단 의미... 면죄부 아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공천 심사결과에 '김 지사 포함 3인 경선, 당원·도민 판단 의미... 면죄부 아냐'라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중앙당 공천심사결과 발표된 가운데 심사결과를 3인을 모두 링 위에 올려 놓을 테니 당원 및 도민들께서 판단하라는 의미로 김 지사 포함 3인 내란방조 및 순응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순배덕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거짓말 그리고 끝까지 현직 도지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서 공직자들을 방해하기로 내세운 행태에 대해 끝까지 당원 및 도민들과 함께 심판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천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물리적으로 지나간 시간과 행위는 그 자체로 진실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몇 마디 말로 뒤엎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직격했다.

따라서 "전북은 인콰으로 중첩된 위기에 봉착해 있는 만큼 도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을 향한 열망으로 고조되어 있다"며 "이 열망을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전북의 산업체질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변화로써 실현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원택 의원은 "전북의 바다와 들이 지닌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해서 햇빛과 바람이 기업을 끌어들이고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국제적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지역업자의 활력 회복, 농생명산업과 K-푸드, K컬처, 새만금 SOC 조기구축을 통해 강력한 전북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써 만들어 나가는 강력한 전북 이제 강력한 전북을 위한 선택만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택 의원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향후 5년동안 9조원 투자하는 광활하고 원대한 새만금 지역의 해상 풍력과 수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 새로운 전환점과 도약의 강력한 전북을 이끌어가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권희성 기자

## 도, 농업용수 기반 강화... 가뭄 선제 대응

내달까지 저수지 등 전수 점검

취약지역 용수 공급 대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3월 초 기준 도내 저수지 2,153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78.9%로 평년 대비 104.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겨울철 강수량 감소와 국지적 가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4월까지 저수지와 관정, 양수장 등 주요 수리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공급 대책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과 가뭄 대

응력 강화를 위해 올해 8개 농업기반 정비사업, 338개 지구에 총 2,947억원 규모의 사업에도 투입한다.

먼저 침수 피해 예방과 배수 능력 개선을 위해 배수개선사업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해 배수장과 용·배수문, 배수문 등을 설치하고 농경지 배수 환경을 개선한다.

노후 저수지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을 통해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과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해 양수장 설치와 농업용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등을 실시하고 농업용수 확보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 14개소에 67억 원을 투입해 준설을 실시하고 약 30만톤의 추가 저류량을 확보하는 등 가뭄 대응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1만호 기자

## 유아교육 내실화·안전한 체험학습 환경 조성 | 전북교육청, 다운누리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 등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체험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다운누리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과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외부보조인력 운영'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다운누리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은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지역과 기관의 여건을 고려해 특색 있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공·사립 유치원 30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유치원 1곳당 3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유치원은 유아의 연령과 발달 단계, 지역 환경 기관의 교육 철학, 누리과정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공간과 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유아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직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외부보조인력' 운영 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현장체험학습 시 외부 보조 인력을 지원해 유아 안전을 강화하고 교직원이 교육 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수요 조사를 통해 외부 안전요원이

필요한 유치원에 연간 최대 2일 이내로 인력을 지원하며, 보조 인력은 안전 관리와 응급 상황 대응, 유아 생활 지도, 인솔 교사 보조 등의 역할을 맡는다.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 유아 40명당 1명 이상의 보조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1일형 체험학습은 유아 40명당 1명의 보조 인력 배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시민 중심, 으뜸적심

# 2026정읍벚꽃축제

2026. 4. 3. ~ 4. 5. (FRI ~ SUN)  
정읍천변 어린이극구장 및 벚꽃로 일일

1일차 정승환 | 김용림 LIGHTSUM(라잇썸) 카르디오

2일차 민경훈 정슬 아리안

3일차 에린 한강 강혜연

문의 ☎ 정읍시청 관광과 063)539-5231~5

정읍시

※벚꽃 개화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